

성도의 벗



8

목차

권두언(선교부장)	4
예언자의 말씀(대관장)	9
상호부조직란?	15
예언자 죠셉 스미스	18
배 일튼 선교부장 취임 1년	25
1966년 한국 지방부 스포츠 기록	28
이 선근 박사 강연 성황	33
한국 물몬의 스포츠 재능	34
물몬은 스포츠를 장려 하는가?	36
정대관 형제와의 일문 일답	38
선교부장님의 가족 프로필	40
선교부 계보위원회 소식	42
지부 소식 (대구지부)	44
침례자 명단	46
각 지부 출석율	47

* * * *

표지 설명: 약동하는 젊은 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卷 頭 言

Editor's Page



死亡아 네 쓰는곳이 어디냐

宣 教 部 長 襄 一 文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 심술궂고 질투심 많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다. 그는 노예로 팔린 후의 여생을 낯선 외국땅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보냈으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집에 돌아가려는 생각을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이러한 부모에 대한 사랑은 구세주 다음으로 성서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자식의 효도에 대한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있다.

아버지 야곱은 친수가 다하자 자기 주위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가트침을 훈시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엮데어 울며 입을 맞추었다. 가족을 생각하는 요셉의 고운 마음은 애굽 사람들도 까지도 감동케 했다.

요셉은 바토 왕에게 졸라됐다.

"우리 아버지가 나토 맹서하게 하며 이트되 내가죽거든 가
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토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창세기 50장 5절)

바토는 아버지를 고국에 묻겠다는 요셉의 열의에 감동되었
다. 그래서 요셉과 친구 및 친척으로 구성된 일행은 장례식을
거행하고자 가나안으로 갔다. 풍속에 따라 그들은 심심한 애
도를 표했고 그는 아버지를 위해 7일장을 지냈다.

1711년에 유명한 중국의 함희 강희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
었다. 그는 예수의 한 제자가 그가 부름받기전에 자기 아버지
를 매장할 수 있도록 예수께 부탁할 때 예수께서 말한 대답에
격노했다. 그가 "주님 우선 저에게 아버지를 장사지내러 가계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할 때 그 제자는 요셉의 훌륭한 옛일을
간절히 바랐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토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
으라" (마태 8장 22절)

강희 함희는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러 왔
고 딸은 어머니를 대적하러 왔으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
하러 왔다는 갈릴리 사람의 말에 몸을 부들 부들 떨었다. 예
수는 어떤 사람의 원수도 그 사람의 가족 가운데 있으리라는
말까지 한 일이 있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
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

니 하고" (마태 10장 37절)

이러한 교리는 정신의 평화와 정치 및 사회의 세력을 모두 잠재식을 통해 선조의 영광에 의존했던 까다로운 옛날 황제에게는 너무나 심한 것이었다. 그는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이 중국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보다 부모에게 사랑을 더 바친 사람도 없고 가족들 생각을 더 많이 한 사람도 없다. 그는 아버지와 꼭 가까운 사이였다. 언젠가 한 번은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는 말한 일이 있다. 더구나 세상에서 그가 행한 그의 마지막 행동은 자기 어머니를 돌보는 자를 분명하게 확정지은 일이었고 다른 사람 아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모친을 맡긴 것이었다.

예수는 어린애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훈계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 그는 보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이집의 십계를 되풀이 하셨다. 즉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잠수하리라"

그런데 감히 황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글 가운데서 주님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가 죽음이 라는 것은 정말 가슴아프고 슬프고 절망의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어떤 생물은 사랑하는 대상과 오랫동안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는 그것을 기초원리로써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라 그러므로 죽은자를 잃었으므로 눈물을 흘리라" (교성 42장 45절)

죽음은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죽음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절망의 시간이 될리가 없다.

의로운 자에게는 죽음이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다 당할 일이나 내 안에서 죽는자는 죽음을 맞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죽음은 저들에게 달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신 사실을 알고 있다. 무덤은 인간의 휴식처가 아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통하는 통로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가셨다. 알마의 가르침으로 이미 우리 말일성도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 사람의 모든 영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알마서 40장 11절)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 행할 지도도를 행위에 따르지 않고 그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 행한 행동에서 평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범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님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영생의 상징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물인 재난과 암흑을 강조하기 위한 십자가를 두지 않고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갖고 있으며 주님을 찬미하는 기쁨과 찬송의 노래가 들어오는 창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 통해 우리는 영생활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일성도의 장례식은 간소하나 그러한 장례는 의미 심장할 것이다. 우리의 장례식은 저 세상으로 가신이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위안과 훈시의 수단이 될 것이다. 비록 심한 슬픔이 나타날려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타내는 슬픔은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고 어색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허하고 형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죽은자를 공경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죽음은 믿음과 의도움을 통해서만 죽은자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도의 장례에서는 직업적인 곡하는 사람이 있을 여지가 없다. 죽음은 걸치례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요 경건한 존경과 순결한 감사를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 * * *

카우리 兄弟 歸國



(카우리 형제)

한국 선교부장 제일보좌와 선교부 계보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 선교부 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기신 레이 지. 카우리 형제는 그의 전속으로 지난 7월 28일 귀국하였다. 카우리 형제는 앞으로의 임지가 하와이로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968년도 한국선교부에서의 하와이 신전 방문계획에 계속 협조해줄것을 약속했다 한다.

豫言者의 말씀

復活의 事實



大管長 데비드 오·멕케이

친애하는 협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역사적인 건물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여 연차대회를 갖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라디오나 텔레비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환영의 뜻을 표하며 축복을 빕니다. 말일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겠다는 사실은 저의 큰 기쁨이요, 또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저는 주님께서 내게 빛을 허락하사 밝히 보고, 다만 단어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의 심중한 의미를 여러분께 전하여 여러분을 깊이 감동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기독교계는 부활절을 맞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같이 경축합니다. 실로 사천년여를 두고 인류가 무덤에서 발견해 낸 것은 인생의 종말이었으며, 수억만

명이 무덤에 들어 갔으며 그중 한 사람도 부활된 불멸의 몸이 되어 돌아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땅을 다 뒤져도 빈 무덤은 없으며 그러한 무덤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도 없고 인류의 무서운 적인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권세가 역사한 무덤이 있다고 외쳐 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사람에게 가득찬 마음으로 그러나 두려워 하면서 예수가 묻혔던 무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 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막 16장 6절)고 천사가 전하신 말씀은 새롭고 영광스런 소식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초월한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무 후무할 놀라운 기적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 전능과 인간의 불멸성이 알려졌습니다. 확실히 부활은 그것이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한 것이라는 데서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로 받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인생의 법칙에 대한 표시입니다.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연고로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다고들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난 일이라든지 무덤에서 부활한 사실은 대개 믿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젠가는 사람의 예지가 밝혀져서 어둠에 묻힌 부활의 과정과 사실을 명약관화하게 이해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대학에서 과학자 한분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비로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둘러싼 우주의 신비에 대하여 그저 바라보며 겹혀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느 힘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고서 우주의 실제의 모습이 존재하는 사유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초인적인 어느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과학연구의 필수 사항인 목적의식과 겸손이 결핍되는 사람입니다.(교회신문에 인용된-1966년 3월 12일자-Elie A. Shneoul 박사의 말씀)

그리스도가 그의 육신을 취하여 부활된 영광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산 지식으로 정리하여 옛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 14장 14절)라고 한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를 가깝게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라고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사실의 증인이었으니,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친히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의 몸을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임명하기 위하여 열한 사도가 모였을 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 사람중에 하나를 세워 우

라토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사행 1장 21-22절)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 증인을 선택해낸, 당시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에게 관하여 공부할 때마다 나는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자라야 십이사도의 일원이 될 자격을 갖춘자로 고려 되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사행 2장 22-32절)라고 했습니다.

여러곳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었던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와 가까웠느냐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버블리 니콜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예수와 접촉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당시 그들의 의견은 기록되어 남았습니다. 예수가 걸터앉은 모래위에 남은 성스러운 자취를 바람이 감히 박멸하지 못했고, 빗줄기가 그의 냉담한 눈물로도, 폐허가된 십자가에 뿌려진 피를 씻어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극히 애매 몽롱하고 생명이 없는 "믿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강하시었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으며 그의 죽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가 죽음에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버블리 니콜스, 우자의 법, 더불어 이사 발행 1936년

56-57페이지)

문제에 접근할 수록 우리는 사도들의 얘기가 참되다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당했을 때 사도들이 침통한 나담과 비통에 싸였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간증을 갖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념 반 동안이나 그리스도 앞에서 영감을 받고 격려되었지만 그가 가시고 나서 홀로 남은 사도들은 혼란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저와 의심과 실망의 감정으로 도저히 회의에 찬 이 세상을 믿게 하지 못합니다. 실망에 들뜬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던 날의 심정이었고 그러한 태도는 유명하지 못한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끝내 순교당해야 하는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이를 강력히 권고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 사도로 하여금 공포를 버리고 신념을 갖도록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웅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계시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셨고, 메시아의 사명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저의 음성을 듣고 계신 여러분, 회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정직함을 의심받지 않았던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간증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멧세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의 영이 죽음의 문을 극복하여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 세상살이는 한낱에 불과하였고, 세상의 끝은 해가 지는 일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영원

세계토 이어지는 아침이 밝아오기 까지의 수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만 한적하고 어두운 무덤에서 오라비의 시체만을 본데 반하여 그리스도는 아직도 그 시체에서 생명을 보았으니,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 나사토가 잠들었도다 ... "(요한 11장 11절)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가 사흘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 곧, 그가 죽으신 후 영의 세계에서 다른 영들과 만나시고 나서 그의 영이 참에 찢린 육신과 다시 결합하여 무려 사십일을 사람들 사이를 왕래하시다가 영광된 몸으로 아버지께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의심과 불안으로 위협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 지겠습니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문자상의 부활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지상 과업이라고 믿는 초대 사도들인 베드로 야곱 요한 등의 제 사도와 태도를 같이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뒤 권팔백년 이 지나고 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보이신 일을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광이 표현할 수조차 없는 모습의 두분이 저의 머리위 공중에서 계신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분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옆에서 있는 다른 분을 가르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에게서 들으라. 고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서 2장 17절)

(다음호에 계속)

相互扶助會란 ?

서리 H. 팔머

하나, 둘, 셋, 넷; 출생, 침례, 영혼한 결혼, 사망.

협세의 우리생활을 모양지워주는 사건들은 많다. 그러나 협세가 종말이 온다음 우리의 내세의 모양을 결정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사건은 이 네가지 사건이다. 만약 말일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네가지 커다란 규정 사실의 힘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도리 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게 된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하므로써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으면 잠차 올 세상에서 그 만큼의 이익을 얻으리라" (교서 130장 18-19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일하는 지식 이상으로 구원(발전)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각성한 다음 지식과 율법에의 순종은 인간의 내세를 결정하는데 없지 못할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1842년 3월 17일 일리노이주 나부시에서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셨던 죠셉 스미스 이세는 교회의 부인들을 위하여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시고 그 조직의 목표를 "자비를 베풀며 병자와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돌보며 삼가들 도우며, 도덕을 바토 잡으며 사회생활의 미덕을 강화하며 인간생활을 최고 수준에 까지 끌어 올리며 부인들의 활동범위와 지위를 향상 시키고 확대하며, 종교, 교육, 문화, 그

리고 우아한 것에 대한 사랑을 키우며, 신앙을 발전시키고 영혼을 구제하며 복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호 부조회는 조직된 이래로 하나의 커다란 국제 부녀 조직으로 발전해 왔으며 1965년 교회의 통계숫자를 보면 이 조직의 회원이 된 여인의 수는 무려 281,806명이나 된다고 한다. 세계 각처에 있는 우리 교회의 부인들은 교육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므로써 인간의 생활을 가장 높은 수준에 까지 향상 시키려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웬 에스. 스페포드 총 본부 회장 및 총 본부 부조회 평의원들의 영감과 인도로 매주의 부조회 공과가 상호부조회 잡지에 실려 세계 각처에 있는 상호부조회에 전달된다. 그리고 교회의 자매들은 경전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진리, 자비의 멧세이지, 가사 처리 방법, 사회와 가족 관계, 건강관리법 및 교양의 정수를 들고 또 서로 가르친다. 이 여인들은 또한 함께 노래하고 자매로서 서로의 괴로움과 행복을 나누며 예술적인 재능을 키운다.

상호부조회 년도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올해의 첫 행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지방부 바자회가 되며 각 지부들은 여름철을 이용하여 이 큰 행사에 내놓을 작품 준비에 바쁘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매주 영적인 공과와 활동을 갖는다.

상호부조회는 그 목표를 높은 곳에 두고 매년 집회와 공과를 더욱 훌륭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해는 한국의 상호부조회에 가장 풍성한 한해가 되어야 하겠다. 상호부조회는 원하는 모든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친애하는 선교부장님께

나는 가끔 신앙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건 훌륭한 신앙이 요구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의 집(성북지역 예배소)에 와서 몇 사람은 안되지만 우리가 신앙있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들이 집회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사람들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1마일 이상 먼곳에서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비를 흠뻑 맞으면서 젖은 옷을 갈아 입거나 말릴 수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까요?

나는 이들이 나의 조부모님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가정을 버리고 미국으로 갔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임을 확신합니다.

나의 조부모님들은 스위스에 물질적인 보화와 가족들의 유대를 버리고 보다 훌륭하고 값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진실로 신앙과 영의 역사와 이 두가치를 연결해주는 결속을 배웠습니다.

7월 16일

스펜서 이. 톨러



豫言者 조셉 스미스

李 英範

1844년 6월 27일 카테이지 감옥에서 조셉 스미스는 폭도의 총탄에 맞아 3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를 친히 알고 그와 더불어 이야기 하고 그와 더불어 지난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으나 역사와 기록을 통해서 조셉 스미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요, 형제요, 선견자로서 우리 가운데에 살아 있으며 영원히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 있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를 고찰해 볼 때에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이면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에 감탄하게 되며 누구든지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가 걸어간 인생의 행로를 보고 동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의 짧은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설흔 아홉번을 근거 없는 죄명으로 체포되었고 지옥 같은 미조리 감방에서 육개월을 지냈으며 수십번 폭도의 엄습을 받았고 몇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었으며 그와 그의 백성들을 뉴욕에서 오하이오주로, 오하이오주에서 미조리주로 미조리주에서 다시 이리노이주로 쫓겨 다니었으며 마침내는 유명무실의 죄목하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폭도에 피살되어 그의 짧은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을 통하여 새 종교를 창시했으며 대학을 설립하고 대 도시를 건립했으며 정부군 다음가는 대 군대를 조직했고 온 세상을 선교사로 뒤덮이게 했으며 황무지의 서부를 개척케 하였고 대 도시의 시장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상과 신념을 사람의 가슴속에 키워주었습니다. 그가 세운 조직체는 지상의 어느 조직보다도 강한 조직체이며 그가 가르친 종교철학은 그 어느 세대의 철학보다도 위대합니다. 그가 남긴 저서는 가장 큰 후평과 필박을 받았으나 오늘은 그 필박속에서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어지는 책입니다. 130년 남짓한 짧은 기간을 통하여 뭉쳐진 그의 후계자들은 그 수가 200만이 넘으며 세상의 방방곡곡에서는 남자와 여자 젊은이나 늙은이가 다 함께 그를 모세보다 위대한 영도자요, 이사야보다 더 큰 선지자로 받들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한 영국의 어떤 저자는 예언자는 친절하고 명랑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하루는 그와 그의 형제 하이럼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을 본듯한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기록에 남긴 일이 있습니다.

요셉을 몇 차례 방문한 보스톤시의 시장이요, 학자이었던 조사이야 퀸 씨 라는 분은 "역사의 인물"이라는 그의 저서 가운데에 이런 말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아직 탐생생하지 아니한 우리의 후손들을 양육할 교과서 가운데에 19세기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 것이냐? 하는

질문에 돌론교의 예언자 죠셉 스미스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감화와 영향은 우리 사회에 크게 미치고 있으며 그 종말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죤셉 스미스의 위대한 점을 나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지닌 강력한 종교적 진리요, 둘째는 그가 지닌 높은 인격이었습니다. 그가 지닌 종교적 진리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가 지닌 인격은 타고난 인품위에 그가 지닌 사명을 완수하는 동안 더욱 장성하고 발전하였는 것입니다.

죤셉 스미스는 낙천적인 사람이었고 투지력이 강하고 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처하게 되면 지옥에 악마를 내어 쫓고 천당을 만들어야지"라고 죤셉 스미스는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건장한 사람으로 평소시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말뚝배기, 뿔뚝기, 특히 레스링을 좋아했으며 당대에 레스링의 최고 선수였던 윌슨로우 (Wilson Law) 라는 분은 레스링으로 죤셉 스미스를 대적할 사람은 넓은 미국 땅에 자기 외에는 없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죤셉은 세밀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곡식은 몸에 좋고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로우며 사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근본이라고 세밀히 모든 인간사를 말씀했습니다. 죤셉은 사람 스러운 인격을 갖춘분이었습니다. 우중컴컴하고 지옥 같은 리버티의 감옥속에서도 "신권의 감화는 오직 오래 참음과 실패와 친절과 은유함과 겸손함과 거짓없는 사람으로서만 가능하다" (교성 121장 41절) 라고 한 유명한 계

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위대한 영혼과 자비롭고 사람스러운 그의 인격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셉 스미스의 뛰어난 성격은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위해서는 모든 위협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박해가 극심하던 1844년 그는 임시 서부로 피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조셉을 비방하기를 "양 떼를 늑대에게 남겨두고 도망간 목자라고"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제 발길을 돌리면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만약에 내 생명이 내 친구에게 가치가 없다면 나에게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고 케테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침내는 조셉은 그곳에서 체포되고 투옥되어 끌내는 가면을 쓴 200명이 넘는 폭도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조셉 스미스에게는 많은 제자들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으며 또 그의 주위에는 조셉을 위하여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1838년 10월 31일은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 또 하나의 암담한 날이었습니다. 미조리의 폭도들은 군대와 자당해서 조셉을 체포하고 조셉을 처형할 허위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굶주린 사자같이 조셉의 피를 갈망하던 모세 윌슨 (Moses Wilson)이라는 육군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이 체포된 라이만 와이트 (Lyman Wight)를 불러서 권유했습니다. "라이만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당신이 조셉과 연관이 있다는 외에

는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오, 그러나 죠편은 우리의 적이요. 만약에 죠편에 배신해서 증거만 한다면 군대 내에서 당신이 원하는 직책을 무엇이든지 간에 주겠오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아홉시에 총살을 받을 것이요" 라이만은 태연히 말했다. "죠편은 당신의 적이 아니요 당신의 친구요. 죠편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요. 그가 만류하지 않았드라면 내가 이미 당신목을 베어 지옥에 급행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에 놀란 대장은 "내일 아홉시 당신은 총살이다."라고 했다. "좋소, 나를 쏘고 당신은 지옥에 가소" 라고 또 태연히 라이만은 대답했다.

죠편의 운명적인 1844년 6월 27일 저녁의 일이다. 명망높은 의사 리차드 윌라드(Richard Willard)는 죠편에게 죠편 형제여, 그대가 감을 건너 피신할 때 당신을 따라가고자 했으나 당신이 나를 못오게 했고 당신과 함께 이 감방에 묶고자 했으나 당신이 못하게 했으니 내가 죠편 형제를 용서할줄 알겠오? 당신이 형장에 가겠오이다." 죠편이 말하기를 "안되요. 그게 무슨 말이요" 의사가 말하기를 "안되요가 무슨 말이요. 당신 대신 내가 죽겠오이다."라고 고집하였다.

이 이외에도 죠편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죠편은 이만큼 신임과 사랑을 끄는 박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죠편 당시의 사도중의 한분이었던 킴볼 씨와 이루어진 이야기는 죠편의 신임성과 인격을 말하는 또 하나의 일화다. 킴볼 사도는 외모가 아름다운 부인을 맞으셨고 또 부부의 열열

하고 두려운 애정생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고 흠모 되는 일이었다. 하루는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서 요셉은 킴볼 사도에게 그의 부인 바이레트(vilate)를 예언자에게 바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야말로 킴볼 사도에게는 청천벽력의 일이었다. 눈이 캄캄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독을 칠한 화살이 그의 영혼을 스쳐가는 것 같았다. 킴볼 사도는 자기의 귀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았다. 오히려 요셉의 내심을 의심해보고 계시의 신빙성을 의심도 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 일이었다. 그는 요셉 스미스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친구로서 형제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로 킴볼 사도에게 들렸다. 사흘동안을 침식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틀 한 후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요셉에게 바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신심을 받은 것 같이 킴볼 사도의 의로움과 충성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내를 돌리어 보냈다. 요셉은 킴볼 사도의 충성심과 신임에 감복하여 그를 일사안고 울었다. (히버 씨. 킴볼의 생애 323페이지)

브리감 영의 임종은 요셉 스미스의 생애를 언급하는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일화다. 온갖 환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성도들을 이끌고 대 평원을 횡단한 브리감 영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대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 수가 무려 솔트레이크 시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서부지역에 걸치어 385개 도시가 된다. 아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대 사도의 임종시 "요셉, 요셉, 요셉"의 세마

디를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였다. 위대한 지도자 부라감 열의 마음속에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자신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인격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지 만 120년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형제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언자입니다. 그를 통해 회복된 진리는 진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만천하에 전해지고 있으며 그의 인격, 그의 사생활, 그의 공헌, 그의 감화, 그의 사명은 깊은 바다가 소리없이 유유히 흐르듯이 역사와 더불어 온 천하에 전해질 것이며 또 그 때에 온 인류는 자유의 평등 속에서 평화와 행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66. 5.

신 호범 教授 韓國訪問

지난 7월 23일 하와이 교회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하고 계시는 신 호범 교수님은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그곳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안부를 전하고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을 위해서 하와이 대학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다. 신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성도의 빛을 통해서 국내외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가며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다.

喪一文 宣敎部長 就任 一年

1965년 8월, 한국선교부는 선교부장을 맞고 보내는,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를 품어보는, 두 섭섭도 특 긴장되고 애뜻함으로 설레이는 마음들이었다. 그게 벌써 일년.(벌써라는 말이 과연 합당할 것인지?) 이제 이 역사의 8월을 맞아 편집실에서는 신임 선교부장의 취임 1년사를 성도의 빛에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 것이다.

1965년의 8월은 그냥 하루처럼 지났고 건 선교부장을 보내고 난 성도들의 섭섭한 감정을 련 선교부장은 조심스럽게 무마해 주면서 이미 미국에서 기록으로 조사해온 자료와 짧은 기간을 통해 얻은 한국 선교부의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의 발판을 놓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치밀한 학자의 인상을 강하게 던져 주었던 팔마 부장은 참으로 치밀하게 어수선한 주변과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하나 하나를 착수해 갔다.

행정적인 면에서 한국 지방부의 독립적인 위치를 강조하여 지방부 다운 면모를 갖게 해주었고 교회를 보다 강력하게 한국 사회에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눈부신 설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상으로 혹은 방송으로 보다 정확하고 폭 넓게 선교활동을 폈다.

한편으로 한국 선교부 산하의 모든 지부의 지부장을 한국 성도도 임명하는데 성공했으며 수 많은 비활동의 구 회원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했다.

기구 장으로는 선교부에 계보위원회와 소년단을 신설 조직했고, 이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신전 사업의 필요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한다는 약속의 성취를 사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특히 자라나는 문화운동의 집토를 열기 위해서, 신촌, 성북 두 지역에 지역 모임을 신설했으며 이로서 서울에서는 예배의 처소가 모두 여섯개가 된 셈이다.

선교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 선교부를 대량임 (한국어로 이박사를 소개하는 선교부장님) 명하여 선교사업과 아울러 내일의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어 크게 공헌하였고 번역 사업으로는 교리와 성약의 번역을 착수하였고 전 선교부장이 시작해논 물문경은 이제 완성의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 선교부 잡지인 성도의 벗도 양상과 품위를 개혁하여 참신한 모습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밖의 번역사업도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취임 이래로 선교부장 사택의 완성과 잠차 신한 목적으로 쓰일 대지구입 등의 사업은 훌륭한 업적인 것이다.

참으로 보통 사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이 모든 사업을 해낸 것은 신안으로 다져진 정력과 근면과 불굴의 투지였으니, 필자가 서두에 벌써 라는 말에 의미를 강조했듯 첫을 이 1년을 통

하여 참으로 어려운 수난을 여리고비 겪어야 했던 괴로움을 뜻한 것이었다.

그 동안 선교부장은 수없는 금식의 기도를 해야 했고, 한때는 남 모르게 연세대 병원에 입원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니 과연 세월은 짧으면서 긴 것이었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세월은 비로서 가치를 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선교부장의 업적에서 산 교훈으로 얻어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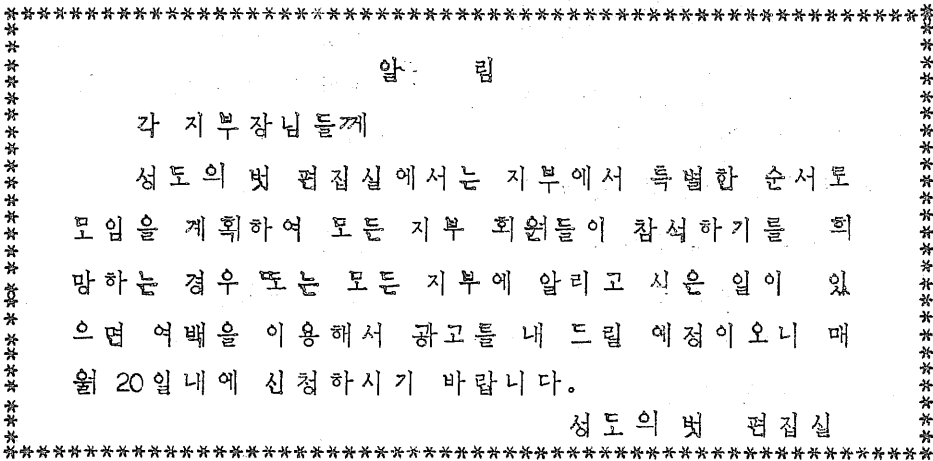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을 성취하였으나 이곳에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교부장에게 내리시기를 빌며 이 땅에서 이 교회가 발전하기를 빈다.

알 림

각 지부장님들께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지부에서 특별한 순서로 모임을 계획하여 모든 지부 회원들이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모든 지부에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역백을 이용해서 광고를 내 드릴 예정이오니 매월 20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벗 편집실



1966年 韓國 地方部

스포츠 記錄

신임 선교부장의 의욕적인 사업이 1966년도에 두드러지게 진행되었고 그 중에도 스포츠는 넘쳐날 수 없었던 좋은 행사와 기록을 남겼고 금년말까지 완수할 계획으로 있는 종목과 스케줄도 호와롭다.



농구 — 지난 4월 30일토 완수를 본 농구경기는 한국지방부 조직이래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체 지방부를 대상으로 한 첫번 경기로 의의가 깊었다. 예선은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 4월 16일에 있었고 서울 지역은 참운중학교 강당에서, 그리고

(농구 우승팀 삼척지부) 영남 지역은 부산 여중 강당에서 각각 막을 올렸다.

서울지역 대전은 먼저 삼척 대 서부, 청운 대 동부의 순서로 격돌했고 준결승에서는 삼척과, 예상을 뒤집고 올라온 청운이 대결하여 삼척이 서울 지역 승자로 결정되었다. 이날 삼척 서부전은 시종 의사이트한 께임이었고 전반을 16대 9로 끝내고 여쳐구니 없는 난전이였다. 맨투로 기선을 제압한 서부가 두골을 선취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팀워이 께지면서 부진했고, 비

교적 안정된 태세로, 그러나 초반에 네포인트를 빼졌던 삼청은 차차 진용을 정비하면서 팀위의 묘로 서부를 격파했다. 이어 벌어진 청운, 동부전은 투지와 관투의 대결이었다. 동부는 처음부터 여유있게 게임을 리드했으나 청운은 사나운 기세로 동부를 추격, 양년의 패자를 불안하게 했다. 전반에서 크게 리드 담했던 청운은 후반에서 프레스로 도전, 관중들의 예상을 뒤집고 역전 승했다. 여기서 동부는 참으로 쓰라린 패배를 맛본 것이다.

준 결승전인 삼청 청운전은 어떤 뜻에서는 아예 균형이재인 대전이라고 하기엔 어려웠으니, 우선 신장에서 청운이 마감했고, 스테미나에서 힘든 대 동부전으로 소모된 후 잠간도 숨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기술에서 삼청은 금년도 패자다운 훈련을 쌓았던 것이었으니 —. 이날 청운은 기필코 동부만은 꺾어야겠다는 의욕을 보였을 뿐 대 삼청전에서는 계임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관중들에게 주었다.

영남 지역 예선도 파란 만장, 예측을 몇번씩 뒤집는 열전이었다. 이날 부산동구는 부전승의 행운을 타기는 했지만 열전 끝에 대구를 제압하고 올라온 부산지부에게 어처구니 없는 참패를 당하고 선수전원이 엉엉 울고 말았다.

이날 영남의 패자가 된 부산팀에는 180센치미터가 넘는 장신 선수가 틀이나 있었고 그중 한 선수는 국적이 중국인 폴몬이어서 이채로웠다.

4월 30일, 서울 패자 삼청과 영남패자 부산은 조용히 토스된 공을 향해 뛰어 올랐다. 삼청 컷 라이트 가드가 라이트포드

에게 드라이빙 런닝 슈트, 그래서 선취점을 올리고 전반을 47대9
토, 총 72대 27토 게임을 끝냈다. 1966년의 한국 전 지방부의
농구 패자로 삼청이 등장 찬란한 금빛 트로피를 받았다.

배구 — 계속된 잠마로 두 주를 연기한 서울 지역 배구 게임은
지난 7월 9일 청운 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스포츠에서
의 라이벌 동부와 삼청은 이날도 숙명적인 대결을 해야 했으니
눈앞에 휘황하던 농구 트로피를 빼앗긴 동부는 이날 기필코 이
겨야겠다는 신념으로, 그리고 농구전에서 배운 쓰라린 교훈으
로 팀을 정비 상당한 연습을 쌓아 가지고 시합에 임한 것이다.
운동에서 팀워크 기술도 중요하지만 선수 전체의 컨디션도 이
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삼청과 동부가 처음엔 시
소를 벌리다가 18대 16으로 리드를 잡던 삼청이 연실로 총 스코
어 21대 18토 첫 대전에서 승리를 빼앗기고는 두번째 게임은 완
전히 전의를 상실한 중에 극도로 긴장하여 졸렬한 플레이를 했
다. 동부의 2대 0 승.

이여 벌어진 청운대 서부전은 서부가 우세한 일방적인 것이
였다. 패자의 행운을 좀처럼 잡지 못했던 서부는 이날 잘짜인
팀에 상당한 테크니을 연마하고 신임 지부장 이태문 형제가 친
히 전위 썬타를 담당하는 도범 팀이었다. 청운을 시종 고집하
게 하면서 2대 0승을 거둔 서부가 삼청을 물리친 동부와 대결
하게 되었을 때, (패자의 선입감이 있었을까?) 서부 선수들에게 패
토의 빛이 보였다.

서부대 동부전은 관중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열전이였다.

놀라운 팀워크를 과시하는가 하면 이미 아마추어를 지난 묘기가 속출하고. 첫 셋트는 동부의 승리로 21대 18. 둘째 셋트는 노한 서부의 승리로 역시 스코어는 21대 18. 그러나 끝내 "패자의 행운"을 잡지 못한 서부는 피로한 기색으로 승리 일보전에서 트로피를 동부에게 빼앗겨야 했다. 그러나 서부는 섭전했다. 이날 동부는 처음부터 과감한 공격으로 상대를 리드했고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연결되는 토스와 스파이크가 위력을 보였으며 라이트 킬러의 자리를 맡은 동부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마음껏 박수를 보내도 부족한듯 했다. 이날 응원삼으로 마련된 트로피가 첫 게임에서 고배를 든 삼청에게도 돌아간 사실을 교훈으로 받아 드려야 하겠다.

같은 날 대구는 자체 연습에서 그쳤고 부산에서는 부산 동구가 부산을 제압하여 농구전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축 구 — 축구전은 장마를 수반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강행된 것으로 먼저 지방부가 보내는 사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이날 그라운드 컨디션은 경기기를 집행하기엔 미급했고, 참가자 협



(부산동구지부 농구 챔피언들)

함도 극소여서 참가한 4개 지부중 2개 지부는 운동선수도 정원이 되지 않아 난조였다. 유감스러운 일은 친목과 상호유대를 목표로 하는 교회의 스포츠에서 승부의식의 과잉이 너무도 강박한 표정을 느끼게 했다는 것 나아가 점점 담당해야 할 플레이에 결함이 왔다는 것이다. 게임 결과 또다시 맞부딪힌 동부와 삼청은 2대 2로 전후반을 끝냈으나, 페널티 킥 위치에서 3개씩의 자유킥을 차 넣는 추첨에서 동부는 또다시 삼청에게 고배의 잔을 안겨 주었고, 청운은 끝내 9명으로 11명을 맞아 선전, 얼마 후에는 한명 부상으로 8명이 대적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게임은 서부가 1대 0으로 리드, 청운을 패퇴시켰고, 결승전인 서부대 동부는 또다시 열전을 벌인 끝에 결국 이번에는 서부가 오랫동안의 승리를 거두어 패자로 군림하면서 전남 배구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앞으로 남은 종목으로는 배드민턴과 소프트볼 타구등이 있으며 각각 어느 방향으로 승리의 왕관이 돌아갈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8월의 소프트볼이 끝나면 대감 금년도 우수 지부의 운곽이 드러날 것 같다. 끝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선수나 관전자의 보다 순수한 태도라고 하겠다. 그리고 영남 지역과 서울이 보다 유기적인 합동 공작을 마련하지 못하는 유감이 속히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의 벗 체육 담당 기자)

李 瑄根 博士 講演 盛況



(강연하는 이선근박사)

상호합상회 각 반 합동의 일환으로서 지난 7월 14일 동부지부 상향회홀에서 가졌던 서울 4개 지부 합동 봉사 이삭줍기 반 모임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지보이시며 전문교부장관을 역임하셨던, 이 선근 박사님의 "조국 근대화의 참여"라는 조국애에 불타는 말씀을 들으므로써 성도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박사께서 연구하신 한국역사를 기초로하여 실제 세계각국을 몸소 돌아 다니셨던 체험을 통해서 이 나라에 주어진 여건이 결코 나쁘지 않으며 스위스의 국민들이 주어진 자라적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와 근면으로 오늘의 지상천국을 만들어 놓듯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물문의 개척정신을 적용할 때 한국의 근대화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결론 지으셨다.

이 선근 박사님의 "조국



(찬송을 부르고 있는 회원들)

韓國 물문의 스포츠 才能

조사결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의 아마추어로서는 뛰어난 재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특히 그때 가운데 각 학교를 대표해서 활약했던 명 선수가 많았음은 건전한 스포츠의 결실이 물론 가운데서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추수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다.

점잖은 형제들을 샅샅이 파헤친 결과 당수, 유도, 합기, 검도 등의 유단자가 의외로 많았고 대개는 지도자들 층의 분포가 더 컸다. 구기에서는 성도의 거의 전부가 전구기 경기를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나아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성도가 각 종목 평균 8할대를 상회하는 기쁜 사실이였다. 그중 학교 대표급 선수로 활약했거나 현역 선수가 전 종목 통합해서 50여명이나 되니 역시 놀라운 숫자다. 그밖에도 승마, 수영, 스케이트, 아이스 학키, 기계체조, 사이클, 달리기 등 물문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의 세계는 넓다.

이 이외에도 한국 고유의 스포츠 중 그네와 씨름이 있는데, 그네는 현재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씨름 얘기가 나오면 적어도 한국과 나성의 성도들은 저 유명한 차종환 형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실 공히 차 형제는 한국 물문의 씨름 왕이며 국내 최강과 겨뤄도 손색이 없는 명선수다. 필자는 아직도 차 형제가 보여준 있을 수 없는 두 씨름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

한번은 지방부 합동 피크닉이 있었던 1960년 서오능에서,

당시 모 대학 재학생으로 레스링 올림픽 후보인 장점을(당시의 구도자) 불과 20여초만에 공중으로 던져 가속도를 안고 지상에 낙하하게 했던 것이다. 장점이 밟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면서 분개(?)하여 다시 한판을 요구했을 때 필자는 속으로 아차 크게 다치지나 않을까 염려했지만, 보라, 물론의 씨름왕 차형제는 이번엔 노 타이프로 그 장점을 넘겨 쓰렀다. 그 장점이 혼이 빠져서 다시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 다음은 유도 의 실력자로 알려진 우리 회원과의 대전이었는데, 막상 결과들 보기 전까지 우리는 결과의 반대를 예상했던 수가 더 많았다. 그때가 차형제에게는 일종 위험한 시간이었으니 맹장 수술로 입원했다가 퇴원한지 일주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형제는 씨름왕의 자리를 챔피언답게 지켜올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물론중에는 낙하산 점프과정을 수료한 형제도 있고 좋은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당구 선수(도)(?)의외로 많음을 첨가해 둔다.

 " 냐 고 "

마지막 무더위를 아이스크림으로 잊도록 모든 성도들을 아래와 같이 초대합니다.

일시 8월 25일 목요일 오후 6:30-8:30
 장소 선교부 감당
 회비 50원

청운지부 상호향사회

몰몬은 스포츠를 獎勵하는가?

몰몬은 이미 신앙개조 집합목에서 밝히 나타나 있듯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따라서 인생을 부하게 하는 모든 것을 크게 장려한다. 생활을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데 바람이 되는 정신과 육체를 훈련하는 스포츠에 있어서라?

이미 1833년 2월 27일, 예언자 조셉 스미스는 인간의 건강을 바르게 관리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계시 받았으니, 신약 여러곳에, 너희몸이 신전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경고적인 반복이 있으리라.

협제 교회 지도자들은 건전한 스포츠를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심신을 단련하고 나아가 보다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브리감엄 대학은 줄곧 스포츠에도 열을 쏟아 훌륭한 기록을 수립했으며 작년에만 하더라도 농구에 있어서는 미국 전대학 리그에서 우승을 획득하여 몰몬의 재질과 투지를 과시했고, 미식축구는 국내 상위(6위)를 마크하여 유타주 사람과 세계의 몰몬을 열광케 했다.

특히 지난 달 성도의 벗에 소개된바와 같이 골프에 있어서는 제스퍼 험제와 밀러 험제가 프로 및 아마추어에서 각각 우승을 획득,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야기가 자꾸 미국으로 돌아가서 좀 안됐지만, 우리 몰몬 협제중에 진 풀머라는 협제는 얼마전까지 미국내 복싱 미들급 챔피언이었고 협제는 그의 동생인 돈 풀머가 역시 복사로 진출,

등급 세계 랭킹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 필자는 기록적인 면에서 몇가지 몰몬의 스포츠 상황을 소개했는데, 스포츠의 장려가 반드시 우수한 기록과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삶의 긍정자로서 스포츠를 권장하며 이 방면에도 공헌할 성도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광마 선교부장님은 취임 벽두부터 동남아를 무대로 하는 대규모 스포츠 활동을 구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스포츠를 권고했고 지방부내의 경기에는 거의 모두 참석하여 열의와 성원을 보여 주셨다. 이 호남 지방부장님께서도 스포츠에 크게 관심을 가지셨고 아울러 한국의 성도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계시다. 이같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장려하고 있는 스포츠는 진정한 스포츠를 의미하는 것이다. 스포츠에 유사 스포츠와 참된 스포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는 스포츠 처럼 보이는 유사 스포츠에 흥분하는 때가 있으니 말이다. 몰몬은 가치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 참으로 몰몬은 진정한 스포츠를 장려한다.

1966-1967 상향회 주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요한복음 14:21 -

鄭 大判 兄弟와의 一問一答

현재 교리와 성약 번역으로 청운동 골짜기 골방에서 남 모르게 수고하시는 정대판 형제를 찾아 성도의 벗 스포츠 기자가 몇마디 스포츠에 관한 소견을 여주어 보았다.

기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도의 벗을 위해 몇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은 다 되었나요?

정형제: 네, 어서 오십시요. 번역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뭐 수고라고 할게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밤해를 해야 겠는데요, 혹시 정형제님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정형제: 네, 좋아 합니다.

기자: 제일 좋아하시는 운동은?

정형제: 글씨? 수영입니다.

기자: 그렇습니까? 수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정형제: 소학교 시절입니다.

기자: 몇미터쯤 수영하실 수 있는지요?

정형제: 허? 몇미터가 됩니까? 지금도 태평양 복판에 떨어진대도 겁이나질 않습니다.

(이리 이 대답에 기자는 질김했다. 들어 앉아 책하고만 씨름을 하는 썬님인지 알았으니 말이다.)

기자: 실례했습니다. 정말 그런줄 몰랐군요. 무슨 형을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정형제: 평형입니다.

기자: 직접 하시지 않아도 그밖에 관심을 가지신 운동은?

정형제: 복심입니다. 그 밖에도 농구 배구는 참 좋아 합니다.

기자: 그럼 앞으로 부인이 퇴실 분이 스포츠꿈이라도 좋겠군요?
요?

정형제: 물론이죠.

기자: 이답에 얘기들에게 스포츠를 권장하시겠습니까?

정형제: 권장합니다.

기자: 만약 부인 퇴실 분이 프로레슬링 선수라면?

정형제: 그건 좀 곤란 합니다. (폭소)

기자: 정형제님께서서는 교회의 자매님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제: 대 찬성입니다. 그 프로레슬링만 제외한다면(다시폭소)

기자: 바쁘신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벗
독자를 위한 한마디를

정형제: 무엇보다도 건전한 영혼은 건전한 육체없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 건전한 신앙도 건전한 육신 없이 는 절름발
이일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성도들에게 자기 개성에
부합되는 스포츠를 적극 권고하고 싶습니다.

정형제의 따듯한 인사를 받고 돌아서는 기자의 마음은 흐뭇
했다. 역시 물몬은 좋은 학자, 좋은 피아니스트, 좋은 스포츠
맨의 이상형이구나 하는 인식이 새로워 졌기 때문이었다. 적
어도 물몬은 어느 분야에서든 뒤지지 않는 충실한 생활인임을
실증하며 살고 있다.

宣敎部長任의 家族 프로필

우리 물문은 가족단위로 구원 받기를 지상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어디에서 보더라도 가족들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비단 물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다. 그래서 편집실은 팔머 선교부장님이 취임하신 후 일주년을 마지하여 선교부장님의 가족생활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은 주부에게 있다고 한다. 그러기에 주부라고 이름 불리는 것 같다. 이 가정의 주부인 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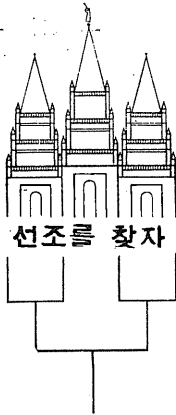
(망중한 동물원에서)

에 취. 팔머 자매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알다시피 동양적이다. 팔머 자매님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함삼 모나리자와 같은 미소를 머금고 계신다. 우리가 팔머 자매님을 동양적이라고 한 것은 진짜 물문의 주부라는 뜻이다. 흔히들 물문의 가족제도는 동양적이라고 한다. 가정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충실

하게 돌보는 한편 선교부장님의 활동에 만유감 없도록 내조에 힘쓰고 계시는 한편 선교부에서 몇사람 못을 맞고 계신다.

여자 청년 상향회 고문으로서 소녀 프로그램을 상향회원부안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시며 주일학교의 중요성에 감안하여 지방부 역원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히 유년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은 팔머 자매님이 미국에서 오랜동안 교사로 계셨던 경험을 토대삼아 빈틈없는 공과 진행을 짜고 계신다. 또한 물론이 주부들이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상호부조회는 팔머 자매님이 몸소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이 나라에 있어서의 상호부조회 활동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기초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계시는 것이 팔머 자매님의 지난 일년동안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부장님의 큰 아들 "드와이트"(6살)는 작난이 좀 심한 편이나 선교부내의 어린이들과 잘 어울려 놀며 가정에서의 지도로 한국말 실력은 선교부장님 가족 가운데 단연 일위를 차지하고 있다. 큰 딸 "쥬넬"(4살)은 오빠의 그림자와 같이 항상 오빠와 같이 행동하며 한국노래도 곧잘 부른다. 막내동이 "제임스"(2살)는 선교부장님 내외분과 선교부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한국 동요는 곧잘 부른다.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들 세 어린이들이 한국노래를 하여 손님 대접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들이 장삼하여 인연깊은 한국에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 흐뭇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특별한 은사를 내리셔서 한국에서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선교부 계보위원회 소식

그동안 한국선교부 계보위원회 회장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구원받을 길을 직접 열어주시던 카우리 형제님이 귀국하셨다. 선교부장 제1보좌로 계시면서 한국의 계보 사업을 위해 군무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던 카우리 형제님이 귀국 하시므로 다소 계보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미국 쉘트레이크에 있는 계보협회와의 사무연락이 거리가 생기는 느낌이 있으나 우리의 가족기록서 작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동부지부와 청운지부와 부산지부 그리고 대구 지부에서는 가족기록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지난 한달동안에 가족기록서를 작성해서 지부 계보위원을 통해 지방부에 제출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척지부 — 한인상, 조영숙, 정지훈, 오재영, 홍기송, 유희영.

부산동구지부 — 박묘자, 이광홍, 김희영, 이영자, 박선희, 임성무, 송재현, 김미자.

가족기록서는 단지 회원의 선조들을 위해서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아닌 사람의 선조들을 위하여 대리 의식을 받

도록 하기 위해서도 작성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족기록서 작성 요령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1. 성명기입.

가족 기록서에 기입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명으로 성명은 로마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의 순서로 세가지틀 쓴다. 로마문자로 쓰는 것은 성을 그대로 먼저 쓰고 이름을 다음에쓰되, 성은 모두 대문자로 쓰고, 성과 이름 사이에 구두점(,)을 찍어둔다. 그리고 로마문자 표기는 회원일 경우, 회원 기록부에 기입된 철자와 일치해야 한다. 부모나 자녀가 회원이 아닐 경우라도 회원기록부상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으므로 가족기록서 상에 부모와 자녀의 이름을 로마문자로 쓸 때는, 회원기록부에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명이인의 취급을 받게되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가족기록서에 성명이 기입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가 위에서 언급한 요령대로 기입되어야 한다: 남편 성명, 남편의 다른 부인 성명, 부인 성명, 부인의 다른 남편 성명, 자녀들 성명, 자녀들의 배우자 성명, 기록 제출자의 성명, 가족대표의 성명.

그러면 성명 기입 요령의 보기를 하나 들어본다.

보기:

(로마문자) HONG, Kil Dong (한자) 홍길동 (한글) 홍길동

各支部 消息

— 대구지부 소식 —

지난 7월 21일(목요일) 대구지부에서는 지부 설립 제4주년을 맞는 카니발이 상호함삼회의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열렸다. 유명희 자매의 사회로 시작된 이 모임은 정정길 형제의 전체 활동 인도로서 막을 올렸다. 풍선 터뜨리기, 고리걸기, 스폰지 던지기, 공굴리기와 하드 아이스크림 판매, 복숭아와 자두팔기 썰개반 전체 회원들의 카레라이스 만들기 및 판매, 어름수박팔기로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것을 마친 후 전체 게임으로 행운의 복권 추첨으로 막을 내렸다. 참석한 회원은 75명 전체 회원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이지만 금년들어 제일 많이 참석한 상향회였다. 1963년 7월 17일 대구지부가 삼덕동에 아담한 한식기와집에서 풍금소리조차 없는 조그마한 온돌방에서 열손으로 헤일 정도의 회원으로 모임을 시작했단다. 그러나 이제 웅장한 피아노의 소리와 의자위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고 있단다. 모든 회원들이 마음껏 웃고 즐기는 동안 그 시간이 지나서야 마치고나니 이제 다음해의 이날을 맞을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회원과 더 재미있는 시간을 맞아야겠다는 생각 뿐.

** 1966년 7월 31일(일요일) 아침 6시 10분 대구 방송국 종교의 시간에 지부장 배수열 장로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선교사의 찬송을 4중창을 끝으로 10분간에 걸쳐 방송을 하였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말일성도의 참진리를 펴수 있게 되기를 빈다. (대구지부 길)



한국선교본부

한국 교계에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 잘 모른다.

쉽게 말해서 「물론敎」라고 해야 알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론敎」라고 하면 그 교리적 특수 성이나 성의의 특이성을 알기보다 흔히 一夫多妻主義라고 하는 가족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물론敎」에서는 一夫多妻主義를 문외하지 않는다. 一夫多妻主義는 물론敎의 창시자인 「요세 스미스」의 영감을 받고 교회를 창립한던 때의 사회적인 특수성을 고려에 넣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물나 한국 기독교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물론敎」을 소개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이기에 여기에 한국에 들어온 「물론敎」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과 신앙개조와 그간의 연혁 및 현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선교부 연혁

1955년 요세 윌딩 스미스 12사도회 회장이 한국을 복음 전도지역으로 봉납함.

1956년 4월 북극동 선교부 한국 지방부 조직.

1962년 7월 북극동 선교부 한국 지방부가 한국 선교부로 승격 분리됨. 초대 선교부장으로서 제일 이. 카장도가 취임.

1965년 8월 선교부장 교체. 제일 이. 카 선교부장 후임으로 스벤서 제이. 팔마 박사 취임.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약사

- 1820년 봄 조세 스미스 2세의 첫번기도
-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
- 1827년 9월 22일 물론경 금관 인수.
- 1829년 5월 15일 아론신권 회복.
- 1829년 6월 벨기세릭 신권 회복.
- 1830년 금관 번역 출판.
- 1830년 4월 6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복.

▲ 한국 선교부 현황

신교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은동 7번지 (구 백운장)

▲ 선교부하의 지방부

- 1. 주한외국인 지방부
 - 2. 한국인 지방부
- 한국인 지방부하의 지부:
- 서울-청동지부, 삼척지부, 서부지부, 동부지부, 신촌지역모임, 성북지역모임.
 - 부산-부산지부, 부산동구지부, 대구-대구 중앙지부
- 한국지방부 회원 수 - 2,500명
신교부 수 - 41명 (한국인 6명)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경건

- 1. 신약 2. 구약 3. 물론경 4. 교리와 성약 5. 값진진주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신앙개조

- 1.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교회회복을 위한 성경연구자 조세 스미스 2세

- 2.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형벌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
-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 4.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신앙, 계이 회개, 계삼 죄 사함을 위한 침수토시의 침례, 계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 5.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 6.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 7.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자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번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
- 8.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물론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1966년 7월 한국 지방부 칠폐자 명단

서부지부: 이상한, 최양숙, 송재숙, 김태희, 강인희, 박정자.

청운지부: 조용득, 송용순.

삼척지부: 이선희, 이영옥.

동부지부: 백승문, 시옥열, 김진호, 민경옥.

부산 동구지부: 정균삼.

대구지부: 박규태, 하남영.

신촌지역: 김용태, 김용득, 김용수.

성북지역: 이계자, 장기호, 김옥녀, 장원길, 곽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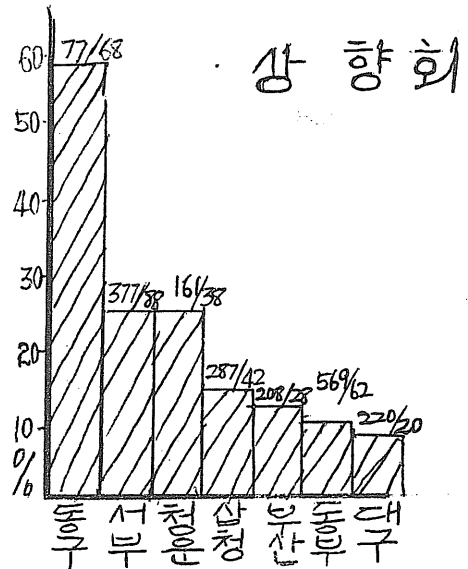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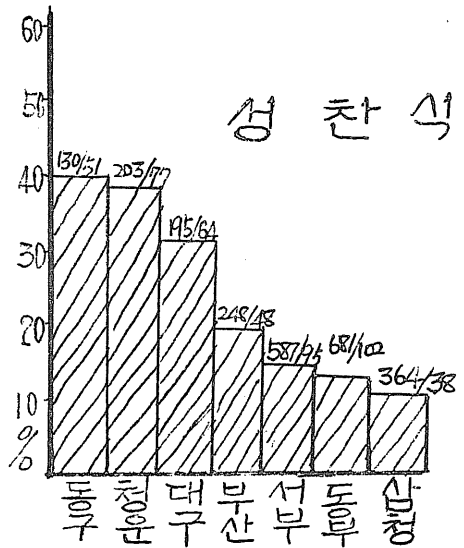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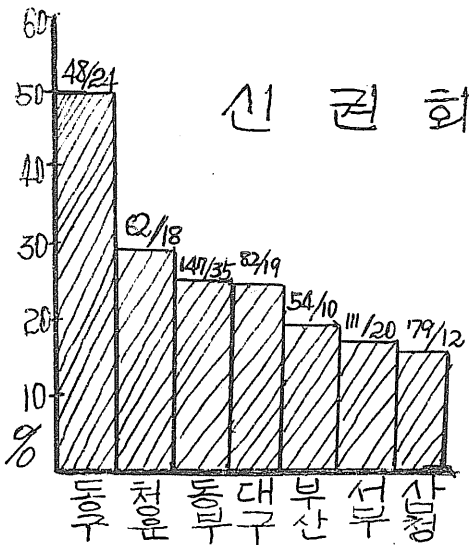
* * * *

편집 후기

잠마가 개이능가 했더니, 이번에는 폭염이 지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고, 그런중에 성도의 벗 8월호는 분만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때미의 울음에서 짜증을 들고 신평기가 확확 더운 바람을 내뿜지만 성도의 벗 8월호가 여러분의 납양제가 되기를 바라 편집실은 부산한 가운데 잠시 더위를 잊었습니다.

늘 느끼는 부족함을 메꾸고 싶다는 요구는, 여러분의 정성 어린 격려와 협조를 기다리는 바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안을 빕니다.

편집실 인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 教 部

(住 所 錄)

- | | |
|----------------------|------------------------------------|
| 宣 教 本 部 }
清 雲 支 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番地
⑦③ 3995 |
| 三 清 支 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⑦② 3596 |
| 東 部 支 部 |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 134의 19
⑨② 1005 |
| 西 部 支 部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 2街 58의 1
⑦③ 1208 |
| 大邱中央支部 | 大邱市 三德洞 2街 2 4 番地
⑧ 6659 |
| 釜 山 支 部 |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 5 番地
⑧ 1371 |
| 東 區 支 部 |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

성 도 의 벗

- | | |
|-------|------------------------|
| 發 行 人 | 스펜서 제이·팔마 |
| 發行人補 | 韓 仁 相 |
| 編 輯 人 | 具 重 植 |
| 發行所 |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 |
| 印刷所 |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 |